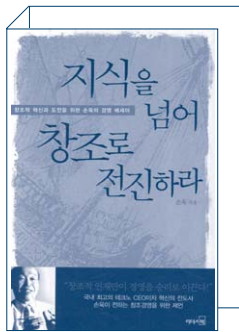


## CEO여, 노하우를 창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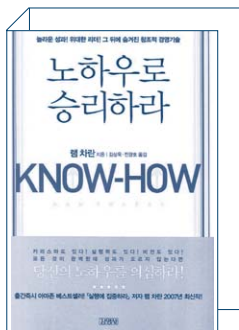
얼마 전 S기업 CEO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업들은 경영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국내 경기 탓을 하고 신세타령을 한다. 앉아서 편하게 장사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지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외국에 나가 열심히 하면 연 20~30% 성장도 가능하다.” 벤처기업 경영자들이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금융공학에 열중하며 머니게임에 몰두한다는 지인 애널리스트의 전언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새 봄에는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한다. 이번에는 국내 CEO와 외국의 경영학자가 저술한 도서를 소개한다.



2006년 서울을 방문한 세계적 경영학자 톰 피터스의 강연에서 그가 내내 강조했던 키워드는 ‘창조(creation)’다. 21세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조를 해야 한다.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 역시 창조적 사고가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창조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학습능력과 학습습관 역시 창조력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지식을 넘어 창조로 전진하라’ (손욱 지음, 리더스북)**는 무한경쟁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조직에 지식경영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영을 이루는 길을 안내한다. 지식경영으로 삼성에 혁신과 변화를 몰고 온 저자는 1975년 삼성에 말단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CEO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삼성 혁신의 모든 노하우를 집약하여 이 책에 담았다.

먼저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창조경영을 위해 고객의 마음을 파악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지식경영을 선도하는 리더십, 지식경영에서 창조경영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조직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법론과 인재 육성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를 지낸 램 차란은 현실감 있고, 실행 가능한 경영이론만을 제시하는 현대경영학의 구루(Guru)다. 그는 특유의 현실감각과 정곡을 찌르는 조언으로 세계적 CEO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컨설턴트로 정평이 나 있다.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빠른 실행력, 남다른 비전...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하우를 의심해봐야 한다. 좋은 리더와 위대한 리더를 구분하는 핵심적 기준은 바로 노하우다.

**‘노하우로 승리하라’ (램 차란 지음, 김영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완성하는 8가지 노하우를 소개한다. 45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현장 데이터, <포춘> 500대 기업컨설팅을 모두 종합·분석해 성공하는 리더와 성공하는 조직의 길을 안내한다.

저자는 수백 개의 기업이 생존하거나 몰락하는 과정, 또 수십 명의 경영자들이 조직을 맡게 된 첫 순간과 그 결말을 파헤쳐보면서 현대 사회에 맞는 리더십의 실체를 밝혀본다. 그래서 비전, 같은 인격, 같은 추진력을 지닌 리더라도 어떤 리더는 놀라운 성과를 내는 반면, 다른 리더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